

# 2024년 북한 대내 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 물가·환율을 중심으로

남진욱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jnam@kdi.re.kr

## I. 머리말

2024년 북한경제는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 지표와 시장 지표와의 괴리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제조업, 농업 분야 성과가 2023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무역도 마찬가지다. 그에 비해 2024년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은 지표상 대격변을 겪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를 비롯하여 돼지고기, 정제유 등의 시장 가격 및 창고 임대료, 써비차(화물차) 이용료 등 시장 서비스 관련 요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시장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달러 및 위안 시장 환율은 2배 이상 상승하며 과거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후폭풍을 겪은 시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2023년 시장 물가 및 환율이 국경 봉쇄 기간이었던 2020~22년에 비해 변동 폭이 작아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던 2013~19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2024년 급등세가 더욱더 대비되었다.

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2024년 들어 나타난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은 2019년 말부터 북한 당국이 펼쳐오고 있는 국가 유통 강화 정책, 외화 사용 통제 강화 기조와 2023년 말 단행된 것으로 알려진 노동자 임금 및 국정가격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외화 거래 단속 강화는 시장에서의 외화 공급을 하락시켰는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중국과의 무역은 반대로 외화 수요를 단기기간에 상승시키며 환율에 상방 압박을 넣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곡을 중심으로 한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은 시장으로의 상품 공급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국정가격 인상은 시장 곡물

가격과 연동되어 시장 물가를 상승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북한 원화 가치 하락은 기조에 깔린 북한 주민의 북한 원화에 대한 낮은 신뢰도까지 더해져 외화에 대한 추가 수요 상승을 초래하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 확보할 수 있는 통계의 부재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는 강화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다. 군사협력 외에 러시아와 북한이 어떠한 형태와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협력을 취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었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상품이 주로 밀, 정제유나 염소와 같은 일부 축산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밀가루 가격이 경제협력의 효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정제유 가격은 다른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국내외 언론보도에서 소개된 자료와 북한전문매체의 시장 물가 자료 등을 통해 최근 북한 대내 경제 상황을 시장 물가 및 환율을 중심으로 평가하고,<sup>1)</sup>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한다. 비교분석을 위해 외부 추정 자료와 국제 물가 및 환율 자료를 함께 활용한다. 다만, 시장 가격과 관련하여 본고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일부 품목 자료만을 활용해 분석한다는 한계가 분명해, 북한시장 전반적인 물가 동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sup>2)</sup>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시장 지표의 상승 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향후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 방향을 전망하고 북한 대내 경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1) 2024년 북한의 실물 및 산업분야 평가는 이석기(2025)를 참고하라.

2) 임송·문승현(2023)은 북한의 시장 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 흔히 활용하는 쌀 가격만 보는 것은 실제 시장 물가를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 II. 2024년 북한시장 지표 동향 및 특징

### 1. 북한시장 물가 추세

북한시장 물가는 2024년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특히 2023년 말 들어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2024년 상승세는 더더욱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한적인 품목의 가격만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시장 물가의 상승 폭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쌀, 옥수수과 같은 주요 곡물과 유류제품 및 돼지고기 가격이 2024년 들어 상승했고, 특히 4분기에 급격하게 오른 것을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쌀과 옥수수의 경우 2024년 1월 평균 쌀 가격은 kg당 5,000원대, 옥수수 가격은 kg당 2,000원대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2024년 12월 평균 쌀 가격은 8,000원대, 옥수수 가격은 4,000원대로 출처에 따라 1년 새 1.5~2배 가까이 대폭 상승했다.<sup>3)</sup> 주로 양강도와 함경북도와 같은 북한경제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의 시장 가격을 조사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AsiaPress』 자료 기준으로는 쌀 가격이 9,000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을 정도며, 『DailyNK』의 혜산시장 조사 자료에서도 12월 7일 쌀 가격이 9,4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2024년 4분기, 특히 11, 12월 가격 상승 폭이 큰 특징을 보인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 후폭풍으로 2012년까지 이어진 극심한 인플레이션 이후 이토록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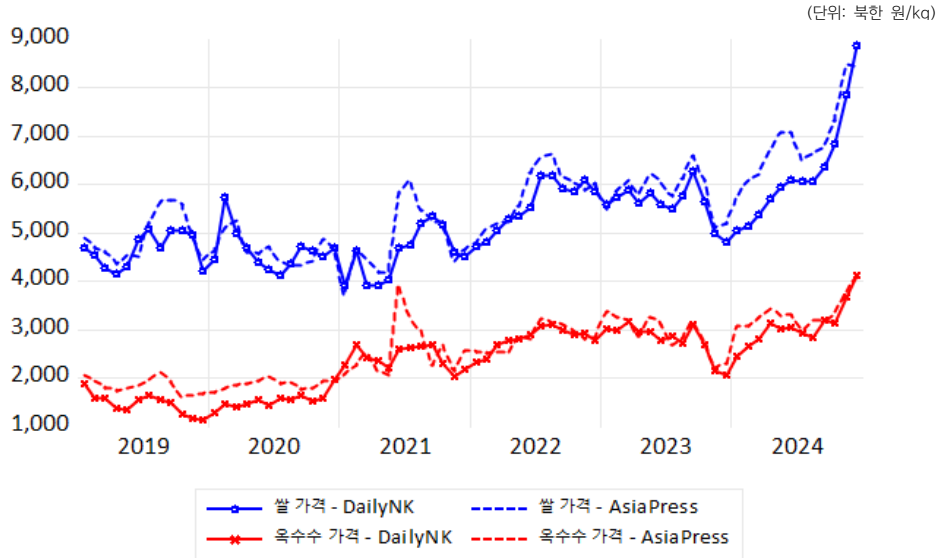
수입 의존도가 낮은 돼지고기의 경우도 2024년 들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2024년 1월 3개 지역 평균 15,033원에서 7월 평균 17,350원으로 15.4% 상승한 것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12월에는 평균 30,667원을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 쌀과 옥수수 가격과 마찬가지로 2024년 4분기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그리고 DailyNK 보도에 따르면 식용유와 설탕과 같은 수입 식료품의 가격도 2024년 한 해 동안 각각 85.0%와 97.9% 상승했다.<sup>4)</sup> 다만, 이 보도는 밀가루가 수입 재화 중 유일하게 가격 변화가 크지 않다고 밝혔으며,<sup>5)</sup> 분기 말 가격 자료를 제공하는 정대희·박동주(2024)에 따르면 밀가루 가격은 2024년 1분기 말 4,925원에서 3분기 말 3,683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3) 『DailyNK』와 『AsiaPress』의 2024년 12월 평균 쌀 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2023년 12월) 대비 84.1%와 62.6%, 옥수수 가격은 99.5%, 78.3% 상승했다.

4) 『DailyNK』, 2025.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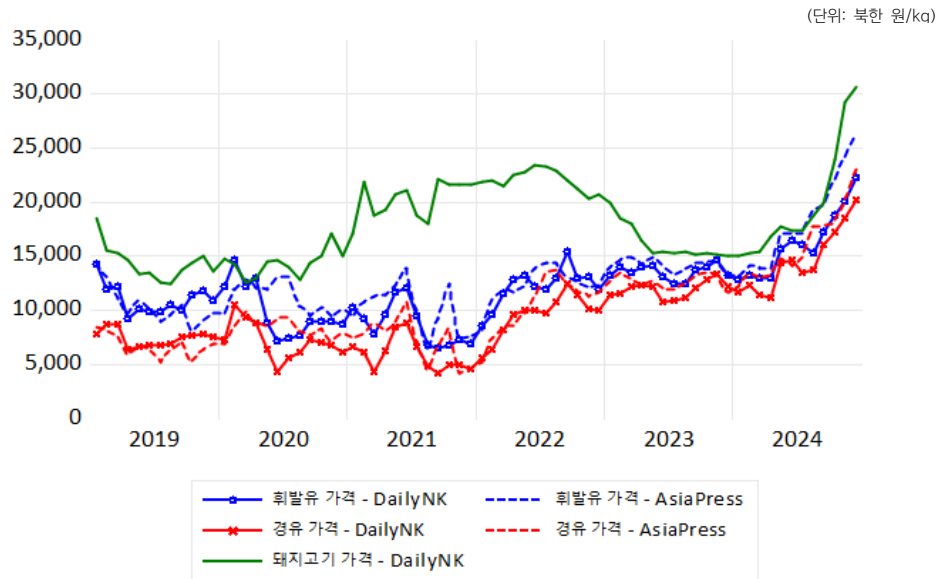
5) 정대희·박동주(2024)의 자료는 2024년 4분기 가격이 없으므로, 이 자료를 통해 2024년 전체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하락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림 1] 북한시장 쌀 및 옥수수 가격(2019. 1~2024. 12)



주: 「DailyNK」는 평양, 신의주, 혜산 시장의 평균 가격임. 「AsiaPress」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북도 가격을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끔 평안북도에서도 조사한다고 밝힘.  
 자료: 「DailyNK」; 「AsiaPress」.

[그림 2] 북한시장 휘발유, 경유 및 돼지고기 가격(2019. 1~2024. 12)



주: 「DailyNK」는 평양, 신의주, 혜산 시장의 평균 가격임. 「AsiaPress」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북도 가격을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끔 평안북도에서도 조사한다고 밝힘.  
 자료: 「DailyNK」; 「AsiaPress」.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2024년 들어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DailyNK』 자료 기준으로 2024년 초에 휘발유 가격은 13,000원대, 경유 가격은 12,000원대 수준이었으나 12월 들어서는 각각 22,000원대와 20,000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 정제유 역시 2024년 4분기 가격 상승 폭이 특히 큰 특징을 보인다. 『AsiaPress』 자료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6,000원대, 23,000원대로 나타날 정도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불법 거래를 통해 정제유를 더 많이 수입하거나 제공받고 있다는 국내외 여러 제보<sup>6)</sup>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며, 북한 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북한시장에서의 상품 거래도 북한 원보다는 외화 혹은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sup>7)</sup> 통일부(2024)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이미 2012년 이후 북한시장에서 거래 시 1순위로 활용되는 화폐는 북한 원화가 아닌 위안화로 나타났을 정도로 외화 선호 경향이 심화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sup>8)</sup> 시장 종사자,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북한 원의 가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최근 들어서는 외화 선호 경향이 훨씬 심해졌을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많지 않으면 북한 원의 구매력 감소가 생계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곡물을 비롯한 식량이나 정제유 등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품목이기 때문에 공급 요인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관찰되고 있는 북한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변동성이 큰 품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직성이 강해 잘 변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이 보여주는 KDI가 구축한 북한시장 서비스 가격 자료<sup>9)</sup>에 의하면 평양의 한 시장에서 짐 한 짝 보관료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000원이었으나 2024년 6월에 2,000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11월에는 3,000원으로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안에 또 한 번 올랐다. 1톤 써비차(화물차) 이용료 또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0달러였으나 2월에 70달러, 그리고 4월에 100달러로 또 상승했을 정도로 서비스 요금 또한 시장 상품 가격과 마찬가지로 오르는 추세다. 이 외에도 자전거 보관료, 주차장 이용료, 여관 숙박비 등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양뿐만 아니라 신의주와 혜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물론 소개한 서비스 가격은 수많은 서비스 가격 중 극소수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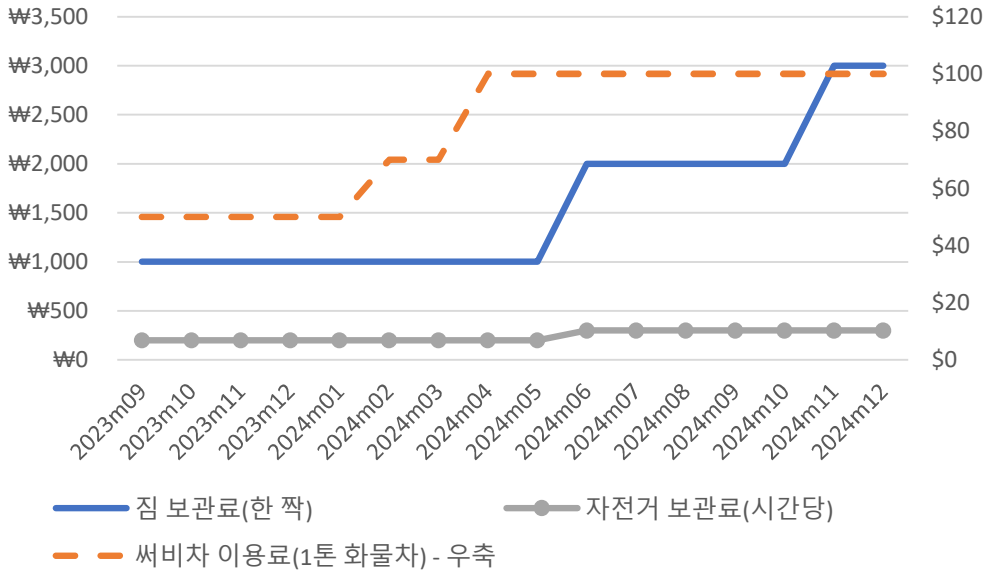
6) 『RFA』, 2024. 4. 16; 『BBC』, 2024. 11. 22; 『VOA』, 2024. 12. 21.

7) 『DailyNK』, 2024. 12. 10; 『SPN서울평양뉴스』, 2024. 12. 13; 『DailyNK』, 2025. 1. 16.

8) 통일부(2024)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장 거래 시 1순위 화폐로 북한 원을 사용했다는 비중은 2011년 이전 탈북한 경우 3,305명 중 80.7%에 달했으나, 2012년 이후 탈북한 경우 3,011명 중 불과 36.4%였다. 2012년 이후 탈북민 중 57.9%가 위안, 3.4%가 달러를 1순위 화폐로 뽑았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석(근간)과 최지영(근간)을 참고하라.

[그림 3] 북한시장 물류/교통 관련 서비스 가격(2023. 9~2024. 12)



주: 평양의 한 시장 기준임.  
자료: 이석(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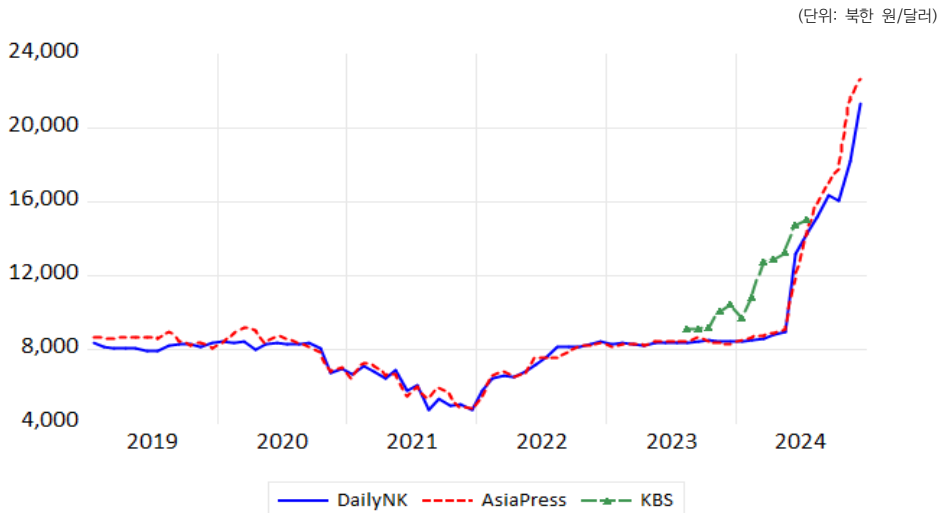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다만, 짐 보관료나 써비차 이용료와 같이 시장 유통 서비스 관련 요금이 단기간에 두 차례 상승한 것은 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요가 늘었거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 2. 북한시장 환율 추세

2024년 들어 나타난 북한시장 환율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원의 가치가 달러와 위안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는 점이다. 시장 환율은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8월에 “반드시 환율을 잡으라”<sup>10)</sup> 지시했을 정도로 북한 당국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환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2024년 말에도 아직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019~24년 월별 북한시장 달러 및 위안 환율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 4]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DailyNK』와 『AsiaPress』 기준으로 2024년 초 8,000원대<sup>11)</sup>였던 달러와 1,200원대였던 위안 환율은 2024년 말에 이르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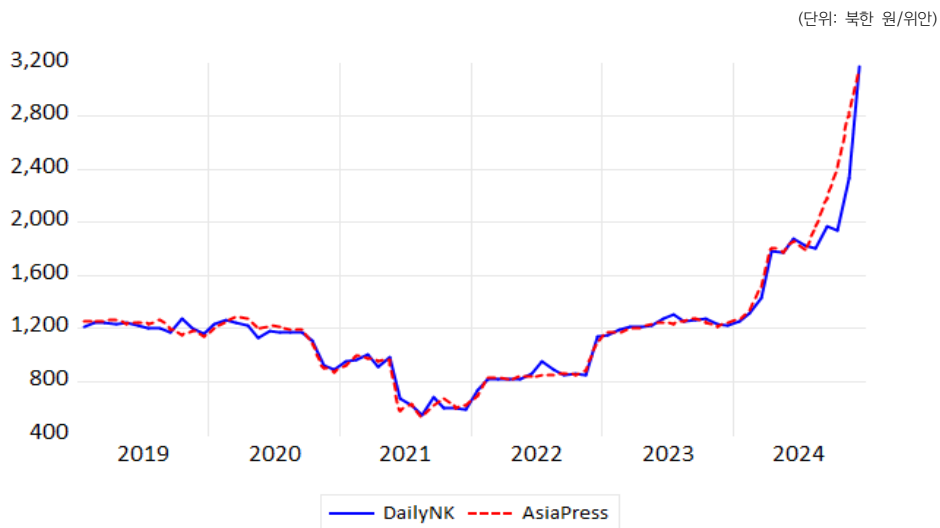
10) 『KBS』, 2024. 5. 23.

[그림 4] 북한시장 월평균 달러 환율(2019. 1~2024. 12)



주: 『DailyNK』는 평양, 신의주, 혜산 시장의 평균 가격임. 『AsiaPress』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북도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하나 가끔 평안북도에서도 조사한다고 밝힘. KBS 자료는 어느 지역 환율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DailyNK』; 『AsiaPress』; 『KBS』, 2024. 6. 1; 『KBS』, 2024. 7. 5.

[그림 5] 북한시장 월평균 위안 환율(2019. 1~2024. 12)



주: 『DailyNK』는 평양, 신의주, 혜산 시장의 평균 가격임. 『AsiaPress』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북도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하나 가끔 평안북도에서도 조사한다고 밝힘.  
자료: 『DailyNK』; 『AsiaPress』.

11) KBS 보도자료 기준으로 북한시장 달러 환율은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를 보여 2023년 말에 이미 1만원대를 돌파한 상황이었다. 다만, KBS 보도자료는 시계열이 짧고 위안 환율은 제공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주로 『DailyNK』와 『AsiaPress』의 환율 자료를 활용한다. 각종 북한전문 매체의 시장 가격 자료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며, 조사 시기,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 북한전문매체의 북한시장 가격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정승호(2023)를 참고하라.

달러는 20,000원대, 위안은 3,000원대로 두 외화 모두 최소 150% 이상 상승했다. 심지어 『AsiaPress』의 11월 29일자 달러 환율은 무려 28,000원을 기록했으며, 『KBS』 보도<sup>12)</sup>에 따르면 11월 20일 신의주 시장에서는 32,000원에 달했을 정도로 환율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단기간에 이토록 상승하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폐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돈 것으로 보도됐다.<sup>13)</sup>

최근 북한시장 환율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달러 환율과 위안 환율의 변동 시차와 변동 폭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sup>14)</sup>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19년 사이 북한시장 환율을 활용하여 구한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은 놀라울 만큼 국제시장 달러 대비 위안 환율과 흡사하게 나온다. 즉, 이 시기 북한시장에서 달러와 위안 환율은 대체로 비슷한 폭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대적인 대북제재 여파가 있는 2017~19년에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는 북한경제가 상당히 달러라이제이션된 것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sup>15)</sup> 그런데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2020년 말부터 북한시장과 국제시장에서의 위안/달러 환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6~7 수준으로 유지되던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이 2020년 말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9를 넘기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격차는 통상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행한 강력한 국경 봉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와 [그림 5]가 보여주듯 이때 북한시장에서 달러와 위안 환율은 모두 상당히 하락하는데, 위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sup>16)</sup> 국경 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요, 특히 위안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여 북한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위안의 가치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이 재개되면서 2023년 들어 해소된 것으로 보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격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2020~22년과는 반대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북한시장에서 위안의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한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 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데 비해 위안 환율은 가파르게

12) 『KBS』, 2024. 11. 26.

13) 『AsiaPress』, 2024. 11. 13; 『KBS』, 2024. 11. 26; 『DailyNK』, 2025.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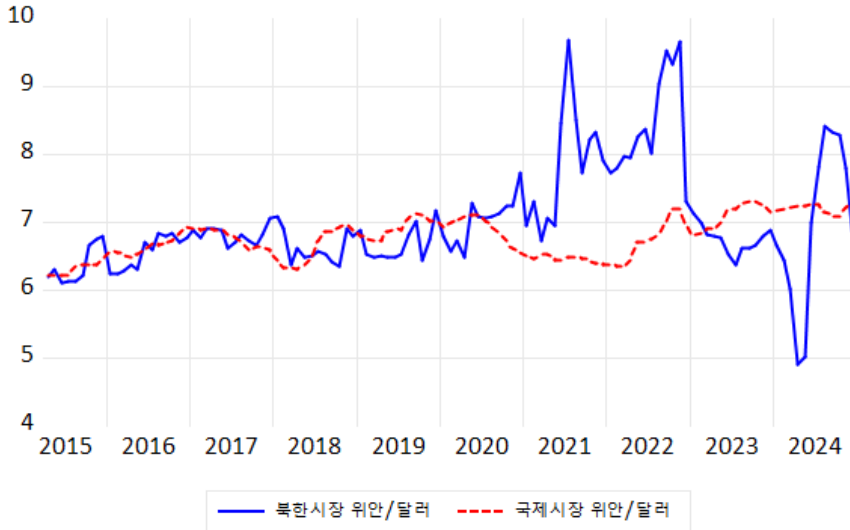
14) 다른 북한시장 관련 지표와 마찬가지로 환율 역시 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시차와 변동 폭이 얼마나 정확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유의하며 관찰할 필요가 있다.

15) 환율 비가 국제시장과 동떨어지게 움직일 때 차익(arbitrage) 실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안/달러 환율이 국제시장에서는 7인데 북한시장에서 10으로 나타난다면, 달러의 가치가 국제시장에서보다 북한시장에서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에서 달러를 구한 후 이를 북한에서 위안으로 환전하여 다시 중국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금융시장은 취약하거나 미비한 수준인 데다가 금융제재로 인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익 실현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2013~19년 사이, 특히 대대적인 대북제재 이후에도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이 국제시장 환율과 흡사하게 움직였다는 점은 제대로 된 금융시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상당 부분 외부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16) 두 외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수요와 공급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경 봉쇄로 인해 무역이 많이 감소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줄었을 것이다. 게다가 시장활동 감소로 인해 북한 주민의 수입이 줄어 저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시장에 풀어 공급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요인은 모두 외화 가치 하락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북한시장과 국제시장 위안/달러 환율(2015. 4~2024.12)

(단위: 위안/달러)



주: 북한 시장은 『DailyNK』, 국제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자료를 활용함.  
자료: 『DailyNK』; 『AsiaPress』; FRED Database.

오르는 것을 [그림 4]와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과 국제시장 위안/달러 환율 사이에 괴리가 다시 나타났으며, 2024년 4월에는 4.9까지 떨어졌을 정도다. 그런데 2024년 6~11월에는 달러 환율 상승 폭이 위안 환율 상승 폭보다 훨씬 커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이 국제시장 수준보다 높아진다. 이렇듯 2024년 내내 북한시장 환율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12월에 위안 환율이 크게 올라 위안/달러 환율이 국제시장 수준과 비슷해진 상태다. 2025년에 들어서 국제시장과 비슷한 추이를 보일지, 2024년처럼 롤러코스터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일지에 따라 북한 시장 환율의 상승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2024년 북한시장 지표 상승 요인

그렇다면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이 이토록 크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환율은 사전적 의미로 한 통화와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화가치는 구매력의 척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환율을 기본적인 결정요인은 해당 국가와 상대국의 물가수준 변동이다.

김일한(2011), 김규철(2018; 2021), 최지영(2015), 남진욱(근간) 등 많은 기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이나 국제 가격이 환율을 통해 북한시장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최근 국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 반해 북한시장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 요인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환율 측면에서는 북한에서 주로 활용되는 외화인 달러나 위안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지닌 미국과 중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이 달러나 위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북한 환율이 외환시장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시장 환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논한다. 다만, 상품 가격에 있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으로 곡물 및 정제유 가격만을 중심으로만 논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 종류의 상품은 모두 북한에서 필수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쌀과 옥수수는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은 반면에 정제유는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차이가 있다.

## 1. 북한시장 물가 상승 요인

### 가. 북한시장 곡물 가격

북한시장 물가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어떠한 연유로 가격이 변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 품목의 시장 가격이 북한의 시장 물가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대표성 문제는 존재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있어 쌀과 옥수수는 필수재인 만큼 이들 가격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북한시장 곡물 가격 변화를 공급, 수요, 국제 가격, 유통 및 정책 그리고 국정가격 측면에서 살펴본다.

쌀과 옥수수의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4년 북한의 곡물 사정은 예년에 비해 괜찮았다고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2024년 식량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2023년 생산량이 농업진흥청 추정 쌀 211만톤, 옥수수 170만톤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산량이 양호해서인지 2024년 쌀과 옥수수 대중 수입량이 2023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 또한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량이 목표 대비 103% 달성했다고 수치를 제시한 데 이어 2024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도 목표 대비 107%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

<표 1>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 및 대중 수입량(2019~24년)

(단위: 만톤)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쌀	생산량	224	202	216	207	211	215
	수입량	16.16	0.13	-	7.49	16.43	1.97
	합계	240.16	202.13	216.00	214.49	227.43	216.97
옥수수	생산량	152	151	159	157	170	161
	수입량	2.29	0.12	-	-	0.68	0.04
	합계	154.29	151.12	159.00	157.00	170.68	161.04

자료: 농촌진흥청; 중국해관통계.

농무부 또한 2023년과 2024년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비슷했다고 추정했다.<sup>17)</sup> 이러한 정황상 북한의 쌀과 옥수수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앞서 [그림 1]과 같은 2024년 쌀과 옥수수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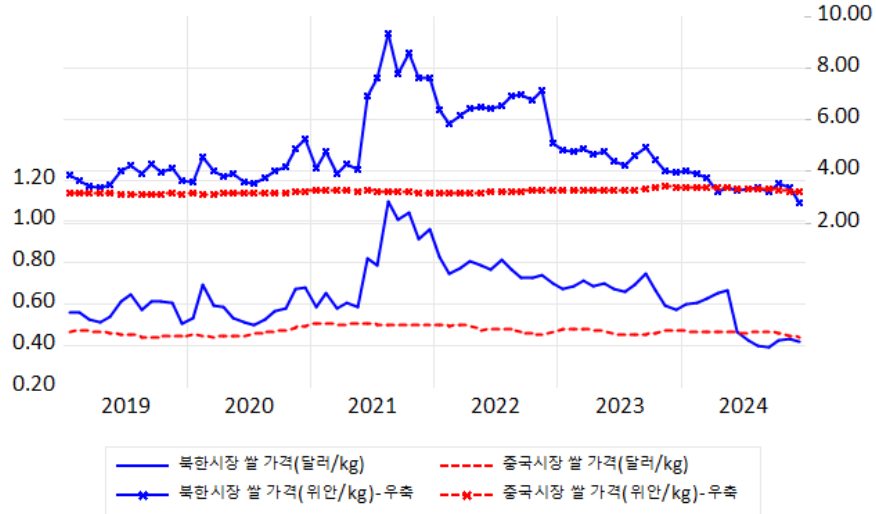
수요는 자료의 부재로 측정하기 어렵다. 다만,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소득의 경우, 2020년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이 늘었으리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주민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이 줄었다면 시장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북한 공장기업소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다.<sup>18)</sup> 2023년 말부터 북한의 주요 산업 부문 근로자의 월급이 10~40배 올랐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보도에 의하면 인상된 월급이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선호하지 않는 돈표로 지급되거나 활용할 수 없는 카드로 지급되어 시장 가격 상승에 대대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임금 인상의 혜택을 북한 주민이 모두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

김규철(2021)은 실증분석을 통해 2014~19년 북한시장 쌀 가격이 북한의 대중 쌀 수입 가격에 영향을 받고 쌀 수입 가격은 중국시장 쌀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봉쇄 이후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림 7]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20년 말~2022년 말까지 이어진 북한시장 환율 급락으로 인해 외화 표기 쌀 가격이 크게 요동친 것이다. 2023년 들어 다소 안정화된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 들어 환율이 급등하자 외화 표기 쌀 가격이 하락하여 북한 원 표기 쌀 가격이 2배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달리 중국시장 쌀 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되기까지 한다.

17) USD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23/24 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223만톤, 옥수수 생산량은 230만톤, 2024/25 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227만톤, 옥수수 생산량은 230만톤이라 추정했다. 월력연도(calendar year)가 아닌 양곡연도(marketing year)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다.

18) 『AsiaPress』, 2024. 1. 5; 『RFA』, 2024. 1. 9; 『RFA』, 2024. 4. 29.

[그림 7] 북한시장과 중국시장 달러 표시 및 위안 표시 쌀 가격(2019. 1~2024.12)



주: 북한시장은 「DailyNK», 국제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자료를 활용함.  
 자료: 「DailyNK»; 「중국국가통계»; FRED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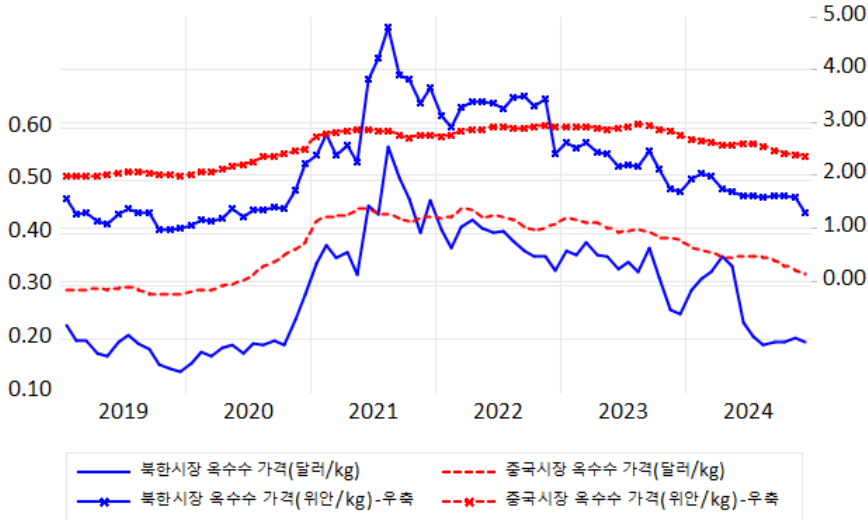
그리고 남진욱(근간)은 2020년 이전과 달리 2020년 이후 북한시장 쌀 가격은 중국시장 쌀 가격과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즉, 2020년 이전에는 중국시장 쌀 가격 변동이 북한시장 쌀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2020년부터는 그러한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북한시장 옥수수 가격의 경우 남진욱(근간)은 2020년 이전에는 대체제인 북한시장 쌀 가격 그리고 중국시장 옥수수 가격과 장기균형관계에 있다고 분석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중국시장 옥수수 가격 및 북한시장 환율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8]이 보여주듯이 쌀과 달리 북한시장과 중국시장 옥수수 가격의 전반적인 변동 방향성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시장 쌀 가격이 2020년 이후 옥수수 가격과 더 이상 장기균형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은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북한 당국의 양곡 유통 등 국영 공급망 강화 정책은 법제 변화 초기부터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눈여겨 본 바 있다.<sup>19)</sup> 북한 당국은 2019년 12월 전원회의 때 이미 “국가상업체제, 사회주의 상업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후 상업법(2021년 8월) 및 양정법(2020~22년) 개정을 통해 양곡 유통망을 장악하려는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9년부터 양곡판매소

19) 북한 당국의 국영 유통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임수호(2023), 최지영(2024; 2025)를 참고하라.

[그림 8] 북한시장과 중국시장 달러 표시 및 위안 표시 옥수수 가격(2019. 1~2024. 12)



주: 북한시장은 『DailyNK』, 국제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자료를 활용함.  
자료: 『DailyNK』; 중국 국가통계국; FRED Database.

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양곡과 소비재를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즉, 시장이 닫고 있던 양곡 유통을 양곡판매소와 국영 유통망이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배급망과 함께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다.<sup>20)</sup> 문제는 국영 유통망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양곡판매소에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은 매해 꾸준히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영 유통망이 양곡 유통에 있어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21)</sup> 이는 결국 북한 주민의 양곡 확보를 위한 시장 수요가 아직 여전히 높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에 최지영(2024)은 북한 당국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이 2024년 북한시장 지표가 상승한 주요 원인이라 지적한다. 정승호(2024) 또한 북한 당국이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 국영 공급망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 기능을 약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 시장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쌀 국정가격 인상을 들 수 있다. 2023년 말 공장기업소 노동자 월급이 인상되었을 당시 쌀 국정가격 또한 46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보도된 것이다.<sup>22)</sup> 과거 국정가격 인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2002년 7.1 조치 이후 kg당

20) 임수호(2023)는 이를 ‘배급-국영유통 병립체계(양곡전매제)’라 칭한다.  
21) 『SPN서울평양뉴스』, 2023. 1. 9; 『DailyNK』, 2024. 1. 10.  
22) 『AsiaPress』, 2024. 1. 5; 『RFA』, 2024. 1. 9.

44원이었던 시장 쌀 가격이 2003년에는 450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크게 상승한 바 있다.<sup>23)</sup> 부분적으로 국정가격 인상이 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이후에도 『DailyNK』 자료 기준으로 3개 시장 평균 달러 환율과 쌀 가격이 2012년 6월 각각 4,455원과 3,400원에서 2013년 1월 8,933원과 6,767원으로 단기간에 약 두배 가량 상승한 적이 있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국정가격 인상 시 국정임금 또한 인상되었기 때문에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거나, 시장 가격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형성 때문에 실제 가격이 상승했을 수도 있다. 다만, 아직 2023년 말 국정가격 인상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sup>24)</sup>

## 나. 북한시장 정제유 가격

북한에서 쌀과 옥수수와는 달리 휘발유, 경유와 같은 정제유는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북한이 정제유를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시장 정제유 가격은 필연적으로 국제 정유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서 [그림 2]는 2024년 들어 북한시장 정제유 가격이 쌀과 옥수수 가격과 마찬가지로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국제시장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북한시장 가격과 달리 2024년에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북한에 많은 양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UN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석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미국정부는 2024년 1~4월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석유가 이미 수입 한도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25)</sup> 또한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re)’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4년 3월부터 11월 초까지 북한에 공급한 석유량이 최소 100만배럴이라고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sup>26)</sup> 이에 2024년에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석유가 총 126~130만배럴 수준일 것이며, 중국이 매년 공급하는 400만배럴과 여타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유입되는 양까지 포함하여 약 600만배럴 정도가 북한에 공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왔다.<sup>27)</sup> 정확한 공급량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2023년보다 2024년 공급량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며, 결국 늘어난 공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 정제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23) 『VOA』, 2009. 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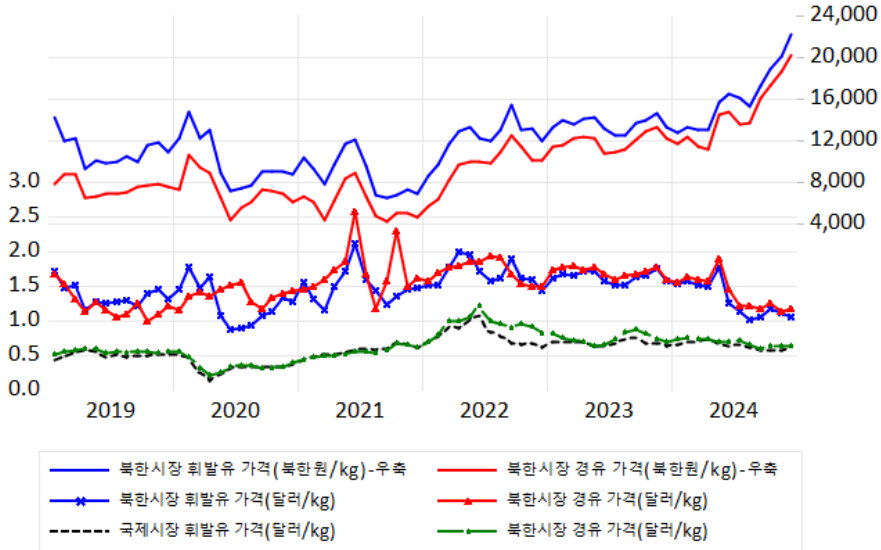
24) 매 분기 말 쌀 국정가격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에 의하면 2024년 1~3분기 쌀 국정가격은 아직 기존의 46원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대희·박동주, 2024, p.243).

25) 『KBS』, 2024. 5. 3.

26) 『BBC』, 2024. 11. 22.

27) 『VOA』, 2024. 12. 21.

[그림 9] 북한시장과 국제시장 정제유 가격(2019.1~2024.12)



주: 휘발유와 경유 국제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석유제품가격 추정값, 북한시장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DailyNK」에서 구매한 3개 지역 휘발유, 경유 가격과 달러 환율을 월별 평균값으로 환산 후 계산함. 북한시장 정제유 가격이 kg 기준으로 되어 있어 국제시장 정제유 가격 또한 kg 기준으로 환산함.  
자료: 오피넷, 「DailyNK」.

북한에서 곡물 수요와 마찬가지로 필수재인 정제유 수요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가정한다면 결국 국제가격과 공급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제유 시장 가격 상승은 환율 상승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시장 환율을 통해 달러 표시 가격으로 환산한 북한시장 정제유 가격의 경우 국제시장 가격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 하락한다. 이에 대해 남진욱(근간)은 2020년 이후 북한시장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북한시장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특히 국제시장 가격보다는 북한시장 환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원의 구매력 하락이 정제유 시장가격 상승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2. 북한시장 환율 상승 요인

2024년 북한시장 가격 상승에는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더불어 시장 환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북한시장 환율이 최근 들어 크게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본다. 북한시장 환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결국 북한의

외화 수요와 공급이다. 그리고 이 외화 수요와 공급은 크게 북한의 무역수지, 인플레이션 수준 및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각 요인별로 살펴본다.<sup>28)</sup>

## 가. 무역수지

먼저 무역을 위한 외화 수요와 공급이 북한 시장 환율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림 4]와 [그림 5]의 2020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의 환율 움직임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경 봉쇄로 무역이 크게 감소하자 외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 환율이 하락한 것이다. 또한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저축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시장에 풀어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하락하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좌우지간 통일부(2024)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시장의 중국산 물품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나 위안을 활용해 해외 물품을 확보해야 하는 수입업자의 외화 수요는 무역액 수준과 연동되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도매상 및 소매상들 또한 물품 확보 시 북한 원이 아닌 외화를 써야하기 때문에 외화 수요가 많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잘 알려졌듯이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규철(2025)이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2024년 대중 수입액은 2023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문제는 그동안 무역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 대외무역 동향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 봉쇄로 인해 무역규모가 많이 감소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8억달러와 5.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2.7억달러와 21.2억달러로 적자규모가 크게 상승했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무역의 2024년 무역적자 폭 14.8억달러로 2023년의 17.1억달러보다는 줄어 들었으나 적자액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적자는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상승시킨다. 북한이 무기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가상화폐 해킹 등을 통해 외화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않으면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환율 상방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북한의 외화보유고 수준일 것이다.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역적자가 최근 환율 급등세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외화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동안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한 환율 상방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sup>28)</sup> 큰 폭의 통화 평가절하를 겪는 사례는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공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금융시장은 미비한 수준이라 배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 나. 시장 물가

최근 북한시장 환율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시장 물가 상승이다. 전술했듯이 환율은 결국 두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해당 국가 통화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환율 상승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시장 물가 상승 또한 북한시장 환율 상승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문제는 확보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가격이 북한의 물가를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sup>29)</sup> 또 다른 변수는 앞서 언급한 식량 배급 국정가격 인상이다. 실제로 인상된 것이 맞다면 2024년 시장 지표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시장 상품 가격 수가 제한적이라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어느 정도 북한시장 물가를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가격 상승 시점을 기준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본다. 관찰 가능한 가격 중 쌀과 옥수수과 같은 곡물은 2024년 초부터 가격이 점차 상승하다가 9월 이후 폭등한 것을 앞서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024년 5월에 한 차례 상승 후 9월부터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돼지고기 가격은 5~9월 점진적 상승 후 4분기 들어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즉, 품목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4분기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 반해 달러 환율은 2024년 6월부터, 위안 환율은 4월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 상품 가격 상승보다는 선행하지만 국정가격 인상보다는 후행한다. 다만, 환율 역시 4분기 들어 상품 가격과 함께 상승하는 추세다. 시계열이 짧고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시장 환율이 상승하자 시장 물가가 이에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는 상호 작용을 하며 서로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북한 당국의 정책

북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외화 거래 관련 정책과 화폐 유통 강화 정책 또한 최근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외화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2023년 8월에는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내려지고, 2024년 4월에는 외화 사용이 발각될 경우 강제 몰수할

<sup>29)</sup> 2023년부터 한국은행은 북한시장 71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분기별 시장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2025년 1월 현재, 아직 2024년 지표가 나오지 않았다.

것이라는 사회안전성의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sup>30)</sup>

그런데 문제는 환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치솟자 다시 개인 간 외환 거래를 푸는 등 통제 완화와 강화 기조를 번갈아 이어가며 혼란을 키워 물가 불안과 북한 주민의 외화 선호 성향을 부추겼다는 점이다.<sup>31)</sup> 그리고 이는 환전상과 북한 주민의 외화 사재기로 이어지며 시장에서의 외화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 내각이 2024년 9월 배포한 정치사업자료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유언비어에 말려들어 외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입하여 저축하는 현상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sup>32)</sup> 그리고 국가가 정한 협동화폐거래소 환율 8,900원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2024년 9월 당시 『DailyNK』 자료 기준으로 북한 3개 시장 달러 평균 환율은 이미 16,358원에 달했고 10월에 16,050원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치솟아 12월에는 21,287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시문의 경고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최지영(2024)은 최근 시장 환율 급등이 2020년 이후 북한 당국이 민간 보유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취한 재정법, 전자결제법, 중앙은행법 개정 및 화폐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 분석한다. 양곡 유통을 양곡판매소 등 국영 유통망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듯이, 화폐 유통 또한 카드 사용 등 전자결제 촉진, 협동화폐거래소를 통한 외화 거래 등 국가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로 100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 달러 환율이 아닌 ‘준시장 환율’인 8,900원에 환전을 해주는 것은 나름 파격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시장 환율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협동화폐거래소를 통해 환전할 리는 만무하다. 반대로 협동화폐거래소가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 주민 입장에서 협동화폐거래소를 통해 외화를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협동화폐거래소의 환율과 시장 환율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협동화폐거래소가 보유한 외화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민이 협동화폐거래소에서 외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의 외화 흡수 노력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경 봉쇄 해제 후 무역 재개에 따른 급작스러운 외화 수요 상승, 북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외화 거래 관련 정책, 외화 사재기로 인한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기대 환율 상승과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이 연쇄 작용을 통해 환율을 크게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30) 『RFA』, 2024. 9. 23.

31) 『KBS』, 2024. 5. 24; 『KBS』, 2024. 7. 5.

32) 『DailyNK』, 2024. 9. 26.

## IV. 평가 및 전망

북한의 2024년 대내 경제는 생산 실적 면에서는 양호했으나 시장 물가 및 환율 관리에 실패하면서 민생 여건을 상당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생산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는 유통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장 물가 및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영 유통망은 아직 상품 공급을 효율적으로 맡고 시장의 유통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보인다. 특히 생산이 안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물가와 환율이 2024년과 같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정책적으로 크게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북한 당국 또한 최근 시장 물가와 환율이 치솟은 것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술했듯이 2023년 중반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환율을 잡으라’ 지시한 바 있을 정도로 시장 환율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 고정범 재정상이 리명국으로 전격 교체되었을 때 이 조치가 환율, 물가 관리 실태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는 보도가 있었다.<sup>33)</sup> 이어 12월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박태성으로 교체되고, 상업상 또한 김영식으로 교체되는 등 내각 당·조직 인사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단행되기도 했다.

과거 2009년 화폐개혁 실패 후 이어진 시장 환율 폭등은 국정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2013년 1월 9,000원/달러 수준까지 다다른 후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 2020년 3분기까지 8,000원대 선에서 균형을 찾았다. 위안 환율도 1,100~1,300원대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바 있다. 현재의 시장 환율 파동은 아직 언제 진정될지 알 수는 없다. 2025년 1월 시장 물가와 환율 추세는 2024년 11~12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고 다소 누그러진 상태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안정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술했듯이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이 국제시장 위안/달러 환율과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북한시장 환율이 다시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이르렀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뉴노멀’ 달러와 위안 환율은 더 이상 8,000원대 초반과 1,100~1,300원대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시장 물가 역시 낮아진 북한원 구매력에 맞춰 형성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2024년 12월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 계획화사업과 가격사업을 개선”을 강조<sup>34)</sup>하며 2020년부터 이어온 국가 주도 경제 복원이라는 운영 기조를 이어나갈

33) 『KBS』, 2024. 7. 5.

것을 암시했다. 유통 체계를 시장이 아닌 국가에서 통제하려 도모하고 있는 현재 가격 균제상태 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부작용 없이 다다를 수 있을지는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

---

34)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2024), p.11.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규철,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8-10, 한국개발연구원, 2018.
- \_\_\_\_\_,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21-06, 한국개발연구원, 2021.
- \_\_\_\_\_, 「2024년 북한의 대외 경제 평가와 향후 전망: 중·북 무역과 러·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2025.
- 김일한, 「북한의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1.
- 남진욱, 「북한시장의 상품가격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 이석·남진욱·최지영, 『북한의 시장 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근간.
- 이석, 「북한의 시장가격 및 데이터의 기본 사항 분석」, 이석·남진욱·최지영, 『북한의 시장 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근간.
- 이석기, 「북한의 실물 및 산업분야」,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2025.
- 임송·문승현, 「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BOK 경제연구』, 제2023-13호, 한국은행, 2023.
- 임수호, 「배급과 시장의 충돌: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INSS전략보고』, No.22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 정대희·박동주, 『KREI 세계농업』, 제260호(2024년 겨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 정승호, 「북한 시장물가 조사방법 및 개선점」,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2023.
- \_\_\_\_\_, 「2023년 북한 시장 물가·환율의 추세 및 시장정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2024.
- 최지영, 「북한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연구동향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5.
- \_\_\_\_\_, 「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 『온라인시리즈』, CO 24-68, 통일연구원, 2024.
- \_\_\_\_\_, 「북한시장의 비상품 가격」, 이석·남진욱·최지영,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근간.

\_\_\_\_,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과 그 영향: 시장 지표 변동과 지방발전정책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2025.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통일부, 2024.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온라인시리즈』, CO 24-67, 통일연구원, 2024.

〈보도자료〉

『AsiaPress』, 「<북한내부> 파격적인, 10배 넘는 '임금 인상' (1)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을 일제히 인상... 그래도 월수 4500원 정도」, 2024. 1. 5.

\_\_\_\_, 「<북한내부>'화폐교환' 단행 준비 정보 확산돼 사재기로 물가 급등 등 혼란, 당국은 부정에 안간힘」, 2024. 11. 13.

『BBC』, 「Satellite images show Russia giving N Korea oil, breaking sanctions」, 2024. 11. 22.

『DailyNK』, 「양곡판매소 곡물값, 시장가와 격차 줄어...공급 부족도 여전」, 2024. 1. 10.  
\_\_\_\_, 「[단독]北, “환율 상승 조장하면 단호히 쳐갈겨야” 정치자료 배포」, 2024. 9. 26.

\_\_\_\_, 「[북한 환율 쇼크] 현금보다 귀한 현물...쌀로 달러 환전을?」, 2024. 12. 10.

\_\_\_\_, 「北 시장 물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주민 반응은 엇갈려」, 2025. 1. 10.

\_\_\_\_, 「새해에도 ‘화폐교환설’ 끊이지 않아...내화 기피 현상 심화」, 2025. 1. 16.

『KBS』, 「정제유로 밀착하는 북·러, 대북제재 노골적 무시?」, 2024. 5. 3.

\_\_\_\_, 「“환율 잡아” 김정은 지시에도 속수무책...북한 환율 사상 최고, 물가 들썩」, 2024. 5. 23.

\_\_\_\_, 「북한 다시 ‘통제’로 회귀...한 달 새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만 가중」, 2024. 5. 24.

\_\_\_\_, 「환율이 8개월 만에 60% 급등...폭망한 ‘김정은노믹스’? [뒷북뉴스]」, 2024. 6. 1.

\_\_\_\_, 「[이슈] ‘사상 최고치’ 천장 뚫린 북한 환율...“정부가 손댈수록 상황 악화”/“북한 재정상 질책성 해임”...김정은 우상화 걸림돌 제거?」, 2024. 7. 5.

\_\_\_\_, 「“북한 통화가치, 연초 대비 ¼로 폭락...경제정책 불신 영향”」, 2024. 11. 26.

『RFA』, 「북, 노동자월급·식량배급가격 시범적 동시 인상」, 2024. 1. 9.

\_\_\_\_, 「북 휘발유·경유값 하락세... 중·러와 불법 거래 증가」, 2024. 4. 16.

\_\_\_\_, 「북 공장기업소 노동자 월급 20배 인상 전면 시행」, 2024. 4. 29.

\_\_\_\_\_, 「비싼 수수료에 높은 물가, 외화 단속까지... 탈북민 송금 ‘삼중고’», 2024. 9. 23.  
『SPN서울평양뉴스』, 「 [단독] 北, 연말에 양곡판매소서 식량공급...재고 부족, 조기에 바닥」,  
2023. 1. 9.

\_\_\_\_\_, 「[단독] 北, 환율 상승로 상품 거래 방식 변화... “달러·위안화 거래, 물품 직거래”」,  
2024. 12. 13.

『VOA』, 「대북 인권단체 ‘북한, 화폐개혁 이후 국정가격 공시’」, 2009. 12. 14.

\_\_\_\_\_, 「[인터뷰] 김경술 박사 “러시아, 북한에 석유 126만-130만 배럴 공급했을 것”」,  
2024. 12.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연호.

<웹사이트>

AsiaPress 북한시장 최신 물가정보 (<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접속일: 2025. 1. 20).

DailyNK 북한시장동향(<https://www.dailynk.com/market/>, 접속일: 2025. 1. 20).

FRED Database(<https://fred.stlouisfed.org/>, 접속일: 2025. 1. 20).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Country Summary  
(<https://ipad.fas.usda.gov/countrysummary/?id=KN>, 접속일: 2025. 1. 20).

중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english/easyquery.htm?cn=A01>, 접속일: 2025.  
1. 19).

중국해관통계(<http://stats.customs.gov.cn/indexEn>, 접속일: 2025. 1. 21).

오피넷(<https://www.opinet.co.kr/glopopdSelect.do>, 접속일: 2025. 1. 21).